

제45대 괴산군수 송인현

- 충청북도 혁신도시관리본부장
- 충청북도 음성군 부군수
- 충청북도 공보관
- 괴산군 사회복지과장
- 경기대학교 학사



제8회 ALGOA 정상회의 개최

20220718-20220719

괴산군은 18일부터 이틀간 충북유기농업연구소에서
‘제8회 ALGOA 정상회의 및 제3회 GAOD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괴산군이 주최하고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 아시아본부(IFOAM Organics Asia) 주관하며 세계유기농연합회(GAOD)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21개국이 참여해 ‘지역 거버넌스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유럽의 유기농 실천 계획과 유럽 유기농상
△알고아 회원 모범사례 △유기농 특화 구역(개념, 도입, 운영) 등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으며, 19일에는 △유기농 연구와 공공 참여 △학교급식의 중요성 및 향후계획
△지방 거버넌스 참여방안 △유기농지도자 교육(마스터클래스) 수료식
△대회 선언문 채택 등 지역 거버넌스에 대한 시민의 참여 방안이 논의 됐다.



소상공인·취약계층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20220721

괴산군은 21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군은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에서 소상공인에게 시행하는 운영자금과 시설개선자금의
대출이자 4.5% 중 3%를 지원하게 됐다.

충청북도에서 미소금융 대출이자 지원은 괴산군이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1억5천만원의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운영된다.



2022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3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

20220721

과산군은 21일 고용노동부 주관 '2022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분야에서 3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군은 이번 평가에서 일자리와 더불어 맘 놓고 일할 수 있는 정주여건을 마련하고, 현재 고용된 인력과 잠재적 고용 가능 인구에 대한 고용서비스를 함께 아우르는 '일자리와 살자리 풀옵션 과산'을 핵심 전략으로 선보여 호평을 받았다.

특히, 최근 5년간 평균 고용률이 71.4%를 달성해 전국(60.6%) 및 충북 평균 (63.06%)을 상회하는 수치를 기록했으며, 일자의 핵심 질적 지표라 할 수 있는 상용근로자수, 고용보험피보험자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일자리 양질화도 입증되고 있다.



민선8기 첫 읍·면 순방 ‘군민과의 소통’ 나서

20220725-20220803

제45대 송인현 괴산군수가 25일 괴산읍을 시작으로 읍·면 주요업무와 현안을 파악하고 군민과의 소통을 위해 11개 읍·면 순방에 나섰다.

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해 노인회장, 리우회장, 주민자치위원장, 지역의원 등 20~30여 명으로 규모를 축소해 작지만 생생한 지역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알찬 소통의 시간으로 꾸려졌다.

군은 소통간담회를 통해 지역의 건의사항과 괴산발전에 도움되는 의견들을 청취하고 군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충북도교육청에 괴산고등학교 정원 확대 건의

20220812

괴산군은 충청북도교육청 윤건영 교육감을 만나 괴산고등학교 정원 확대를 건의했다.

2022년 3월 목도고가 폐교되면서 괴산지역에서 중학교 졸업 후 진학할 수 있는 고등학교는 괴산고가 유일한 상황에, 2023년 괴산고 1학년 정원은 5학급 100명으로 지역 내 중학교 졸업자 180여 명 중 괴산고 진학 희망 학생을 모두 수용할 수 없어 타 지역으로 진학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 그 배경이다.

괴산군은 인구소멸 위기지역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등학교 정원 제한으로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으로 진학하는 학생의 유출을 막기 위해 군의회와 함께 힘을 모아 교육청에 건의했다.



관내 기업인 초청 간담회

20220824

과산군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기업인들과 소통하기 위해
‘기업인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민선8기 새로 취임한 과산군수를 비롯해
박덕흠 의원이 참석해 기업인들과 만남의 자리를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기업경영 전반에 대한 애로사항에 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지역 사회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했다.



괴산군↔인천광역시 서구청 ↔괴산군조합공동사업법인 ↔검단농업협동조합 도·농 상생협력 업무협약

20220830

괴산군은 22.8.30. 인천시 서구청, 괴산조합공동법인, 검단농협과
도·농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괴산에서 치러진 인천 검단농협 주부대학 화합행사의 인연으로
맺어졌으며, 4개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괴산지역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에
상호 협력하고 전략적 관계를 구축해 상생과 동반 성장을 이뤄나갈 계획이다.

괴산의 우수한 농특산물 중 가장 인기 품목은 괴산청결고춧가루로
이날 협약식 현장에서도 약 1억 7천만원 상당의 구매 약정이 이뤄졌다.



올해 첫 친환경 벼베기

20220831

괴산에서 재배된 진광벼 품종에 대한 첫 벼베기가 8월 31일 진행됐다.

이날 벼베기한 곳은 칠성면 갈읍리 추교성씨의 논으로 이번에 수확한 벼는 극조생종 진광벼다. 진광벼는 병해충에 강하고 밥맛이 좋은게 특징이어서 소비자들의 반응도 좋다.

괴산군은 고품질 쌀 생산과 판로 확보, 브랜드화를 위해 기술과 자재 지원을 확충하고 있으며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에도 노력하고 있다.



'청정괴산 고추에 반하다' 2022 괴산고추축제 개막

20220901-20220904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3년만에 다시 대면 행사로 개최되는 이번 고추축제는 '유기농의 메카, 청정괴산 고추에 반하다'를 주제로 9.1~4일까지 유기농엑스포 광장 일원에서 펼쳐졌다.

나흘간 펼쳐진 행사기간 동안 각종 문화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고추장 담그기 체험 등 다채로운 체험행사가 마련되었고, 먹거리마당에서는 고추음식을 비롯해 각종 향토음식을 선보였다.

고추축제의 꽃인 괴산청결고추는 축제기간 동안 6kg 1포를 1만원씩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었고, 택배는 무료로 제공됐다.



괴산군수, 모교 괴산고서 특강

20220914

송인현 괴산군수가 14일 모교인 괴산고등학교를 찾아
1~2학년 재학생 215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했다.

송군수는 학창 시절에 대한 이야기로 학생들의 공감을 이끌었으며,
공직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려운 난관 극복과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던 일화를 소개하며 후배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제18회 목도 백중놀이' 개최

20220923-20220924

괴산군 불정면에서는 9.23~24일 제18회 목도백중놀이를 개최했다.

코로나19로 행사가 중단된 지 3년 만에 열리는 이번 행사는 불정면 리우회 주관으로 자연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소금배 재현, 풍물놀이, 주민안녕 기원제, 민속전통놀이, 목도 강변가요제, 버스킹 공연 등이 진행됐다.

특히 목도강수욕장에서는 조선시대부터 1930년대까지 목도 나루터로 성행했던 소금배가 입항해 소금, 젓갈 등 생활필수품을 괴산의 농특산품인 고추, 콩, 참깨, 담배 등과 물물 교환하는 장면도 재현됐다.

백중은 농사가 끝나가는 백중날(음력 7월 15일)을 맞아, 천신의례와 잔치를 벌여 노동의 고단함을 달래고 농사일에 지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음식을 마련해 함께 먹으면서 민속 놀이를 즐기는 풍속이다.



청천전통시장 '버섯축제'

20220924-20220925

9.24~25일 과산군 청천면 청천푸른내시장 일원에서 펼쳐진
‘버섯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올해로 22회째를 맞이한 버섯축제는 충청북도와 과산군이 주최하고
청천푸른내시장상인회에서 주관하여 버섯요리 경연대회,
군민노래자랑, 버섯요리 시식, 각종 체험행사, 공연 등이 진행되어
전통시장 방문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



지구촌 유기농 축제 ‘2022과산세계유기농 산업엑스포’ 개막

20220930-20221016

지구촌 유기농 최대 축제인 ‘2022과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가 ‘유기농이 여는 건강한 세상’을 주제로 9.30일 과산군 유기농엑스포 광장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성대한 막을 올렸다.

이번 엑스포는 지난 2015년에 이어 7년만에 개최되는 국내 유일의 유기농 분야 국제행사로 충청북도와 과산군, 아이팜(FOAM) 유기농 국제본부가 공동으로 개최하였으며, 국내외 427개의 유기농·친환경 관련 기업, 단체, 기관과 해외 66개국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행사로 치러졌다.

전체 13만m²의 행사장에는 주제전시관, 국제협력관, 산업관, 진로체험관, 곤충생태관, 생태체험관, 야외 전시장 등 6개 전시관과 15곳의 야외전시 체험장을 갖췄다.

주공연장과 문화존 특별무대에서는 엑스포 기간동안 140여 회의 다양한 문화공연이 펼쳐졌고, 아이팜 50주년 기념 컨퍼런스를 비롯해 15개의 국내외 학술회의 각종 야외 체험 프로그램 등이 운영됐다.



제5회 아시아유기농대회 및 IFOAM Asia 10주년 기념식

20221013-20221015

제5회 아시아유기농대회는 2년마다 개최되는 아시아 최대 유기농대회로 이번 학술대회는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유기농엑스포가 열리고 있는 괴산에서 개최됐다.

학술대회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강 IFOAM Asia 명예회장이 지난 10년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내용으로 기조발제를 시작하며 국경을 넘어 더 굳건한 아시아의 유기농업이라는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어 14일에는 유기농인증시스템, 유기농 생산농법, 유기농 창업 육성, 유기농 분야 육성을 위한 사회 포용성이라는 주제로 유기농업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마지막 날인 15일에는 아이팜아시아 10주년 기념식이 개최돼 아시아유기농대회의 폐막이 진행됐다.

한편 IFOAM(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 유기농 국제본부는 1972년에 설립돼 현재 132개국 850개 단체가 회원으로 있으며, 유기농업 관련 전문분야 플랫폼이 존재하고 국제적인 전문가들이 종자·양봉·수산양식·축산·기술혁신 분야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대륙별로 지역 조직이 있으며, 아시아 지역 조직인 IFOAM 유기농 아시아본부는 유기농엑스포의 개최지인 충북 괴산군에 소재하고 있다.



'2030 탄소중립 비전 선포식' 개최

2022.1.14

과산군은 기후위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30 탄소중립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군은 이번 선포식을 통해 기후변화, 생태계 파괴로 인한 인류의 생존권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비전을 군민 앞에 천명하고, 군민의 단합된 의지를 모아 '자연과 함께 하는 청정 과산' 실현을 다짐했다.

탄소중립을 위해 2019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한 과산군은 2020년 기후변화 비상선언, 2021년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가입, 지방 정부 탄소중립 특별세션 참여, 탄소중립 도시를 만들기 위한 기후변화대응 선도도시 기초구상 연구를 추진한 바 있다.



공무국외출장(필리핀)

221024-221027

과산군은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과 관련하여 필리핀을 방문해 25일 GMA시와 26일 AMADEO시와 MOU를 체결했다.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문화, 사회, 경제 및 투자 등 각분야에 대하여 상호교류, 협조, 지원을 강화하고 필리핀의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계절근로자 도입을 지원하는 것 등에 협력하는 것이다.

군은 협약에 따라 계절근로자가 머무를 농가 숙소정비 및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지원하고, 필리핀 GMA시와 AMADEO시는 한국농촌에 적합한 근로자의 선발 및 교육 등을 지원한다.

이어 군농식품 수출사업단은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 26일 필리핀 한인총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해외사업에 관한 상호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날 협약식에서는 함께 참여한 미미식품과 필리핀 한인총연합회 간 4만 달러의 수출계약이 체결됐다.



지진 발생 비상대책회의 열어

20221029

22.10.29. 괴산에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했다.

괴산군은 피해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현황 파악 및 향후 대처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지진은 충북에서 최근 10년간 발생한 지진 중 규모가 가장 컸지만, 다행히 접수된 피해는 없었다.

군은 진양지인 장연면 조곡리 등을 방문해 현장 조사를 마치고 추가 점검을 실시했다.



청주 농협하나로마트서 괴산시골절임배추 홍보

20221109

괴산군은 괴산의 명품 농산물인 절임배추의 우수성을 소비자들에게 적극 홍보하기 위해 청주농협 물류센터에서 홍보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절임배추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시식행사를 진행했으며, 사이버괴산군민 가입자에게는 김치 용기를 사은품으로 증정했다.

전국적으로 명성 높은 괴산시골절임배추는 최고 품질의 괴산배추를 깨끗한 물로 씻은 뒤 100% 국산 천일염으로 절여 뛰어난 맛과 식감을 가지고 있어 괴산의 효자 농특산물로 손꼽힌다.



괴산군-국립산림과학원 업무협약 체결

2022.11.17

괴산군은 11.17일 산림업무 활성화 협력을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산림을 활용한 다양한 산림의 가치 선순환과
산림산업의 신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양
기관의 상생발전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양기관은 △산림 분야 협력사업 발굴 및 협력체계 구축
△국가연구개발사업 상호협력 및 공동 연구 추진
△기술 교류 프로그램 연계 및 공유 추진△연구시설
· 장비 공동 활용 등에 대한 상호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개최

20221123

괴산군은 재난발생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대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훈련은 괴산군, 소방서, 충북소방본부 119 항공대, 경찰서, 의용소방대 등 13개 민·관 기관이 참여해 현장훈련을 실시했으며, 괴산중학교에서 과학 실험 중 폭발로 인한 화재 발생에 대응해 긴급구조통제단과 통합지원본부를 운영, 소방차, 헬기, 순찰차, 굴삭기, 방역차, 구급차, 전기복구차 등 다양한 장비가 대거 동원되어 실제상황을 방불케 했다.



인구감소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준비위원회 발족

2022.11.29

과산군은 소멸위기 지역의 발전 방향 모색과 균형발전을 실현하고 인구감소지역 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준비위원회 발족식'을 11.29일 가졌다.

이날 발족식에는 송인현 과산군수를 비롯해 이태산 강화군 부군수, 정현수 거창군 행정복지국장, 이남철 고령군수, 박형호 신안군 부군수, 최태섭 양양군 부군수, 김광열 영덕군수, 심민 임실군수, 이현종 철원군수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 준비위원장에는 송인현 과산군수가 선출되었고 협의회 명칭을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로 채택했다.

공동 제안문에는 △수도권에 집중된 일자리 분산을 위한 경제구조 개편 대책 요청 △인구감소지역의 기본 인프라와 행정서비스 구축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요청 △인구감소지역 내 규제로 인해 소멸위기를 겪는 지역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 요청 등을 골자로 담았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국 환송행사

20221202

과산군은 12.2일 한해 농사를 성공적으로 갈무리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113명의 캄보디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위한 환송행사를 가졌다.

이번에 출국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지난 7월에 입국해 150일간 과산군의 대표 농·특산물인 옥수수, 고추, 절임배추 등 농작업을 도우며 일손이 부족한 관내 45개 농가에서 구슬땀을 흘렸다.

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를 위해 캄보디아 외에도 필리핀 2개 도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미래식품산업연구센터 성과보고회 개최

2022.12.12

괴산군은 미래식품산업연구센터에서 올해 추진한 사업 결과물을 공유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한 성과보고회를 12.12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10개 식품업체가 참여해 우리밀을 사용한 국수, 유기농 인삼과 베리를 이용해 만든 티백차, 대학찰옥수수를 이용해 개발한 수제 맥주 등 9개의 제품과 패키지 디자인을 소개했다.

현재까지 미래식품산업연구센터를 통해 7건의 특허출원을 완료한 괴산군은 지역 내 18여개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기업지원을 진행해 32개의 제품을 개발, 판매 중에 있다. 상용화된 제품의 원료에는 괴산의 대표 농특산물인 감자와 옥수수, 사과, 콩, 표고버섯, 쌀 등이 포함돼 관내 농특산물 소비촉진에 기여하고 있다.



괴산군-내, 주거플랫폼사업 기본협약 체결

20221214

괴산군은 주거플랫폼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내) 충북지역본부와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21년 7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협약 체결에 따른
칠성생활권(칠성, 장연, 연풍) 작은 학교 살리기 연계형 주거플랫폼
조성사업의 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에 따라 내는 괴산군의 지역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및 운영·관리에 적극 노력하고, 괴산군은
공공임대주택단지의 행정·재정적 사항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군은 '주거플랫폼 조성사업'으로 사업비 80억원을 투입해 장연면
오가리와 연풍면 행촌리에 2024년까지 각각 임대주택 20호를 신축한다.



국가유공자 유족 명찰 달아드리기 행사 개최

2022.12.19

괴산군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보훈 행사와 대외적인 활동 시 착용할 수 있도록 제작한 명찰을 직접 전달하기 위해 유족 명찰 달아드리기 행사를 개최했다.

국가유공자 유족 명찰은 괴산군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 전몰군경유족,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 404명에게 전달 됐다.



지자체 최초 한국산림경영인증 획득 '쾌거'

2022.12.22

괴산군이 12.22일 전국 지자체 최초로 한국산림경영인증을 획득,
‘지속가능 숲 경영 도시’ 현판 제막식을 가졌다.

‘한국산림인증제도’는 한국임업진흥원이 2016년 해외의 산림인증제도를 우리나라 산림의 실정에 맞춰 처음 만들어 졌으며, 이후 2018년 국제산림 인증연합 프로그램과 상호 인증을 체결하며 국제적으로 통용하는 인증제도이다.

‘산림경영인증’은 산림이 자연생태계를 보존하고 지역 주민과 근로자의 삶에 혜택을 제공, 불법적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지속가능한 산림을 관리하고 있음을 보장한다.

괴산군은 괴산읍 동부리 산2 외 503필지 군유림 전체 면적인 2,567.65ha를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전국 지자체 최초로 한국산림경영인증을 획득했다.



송인현 괴산군수, 모교 괴산중서 특강

20221223

송인현 괴산군수가 12.23일 모교인 괴산중학교를 찾아 전교생 대상 '괴산 미래의 주역! 선배가 들려주는 인생이야기'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먼저 오래 전 자신의 지난 학창시절에 대한 이야기로 학생들의 공감을 웃음을 이끌어낸 송 군수는 이어 9급 공무원으로 첫 공직에 입문해 괴산군수가 되기까지의 희망 그리고 역경 등을 거친 자신의 경험을 전해주며 학생들의 인생 방향에 조언을 전달했다.



괴산군 '푸드테크 산업' 선점 본격 나섰다

20230206

송인현 괴산군수는 2.6일 괴산읍 대제산업단지에 위치한 푸드테크 기업 (주)뜨란을 방문, 설비시설 구축 상황을 확인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주)뜨란은 지난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한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 지원사업'에 선정되며 50억원을 투입해 국산 콩 활용 대체식품 가공시설을 구축했다. (주)뜨란은 국내 최초로 국산 콩을 활용한 식물성 대체 단백질 소재를 개발해 자체 대체식품 브랜드 '미트멀리즘'을 3월에 출시, 푸드테크 산업 선점에 첫발을 뗐다.

괴산군은 대체식품 사업을 통해 관내 콩 계약 재배농가의 소득증대와 신산업 스타트업 청년 인구 유입등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푸드테크'란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유합으로 식품산업에 바이오기술(BT), 정보통신기술(ICT) 등 혁신기술을 접목한 신산업 형태를 의미한다.



2024년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

20230206

과산군은 2.6일 2024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공립 노인전문
교육원 건립 △과산 지방정원조성사업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
△신항, 유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과산~감물 도로건설사업
△후영 외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사업 등 총46개 사업이다.

군은 지속적인 신규사업 발굴로 국가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사업
기획, 구체화 등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경로당 친환경쌀 공급을 위한 협약식

20230222

과산군은 2.22일 칠성유기농영농조합법인, 과산지역자활센터와
'과산군 경로당 친환경 쌀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과산군 경로당 친환경 쌀 지원과 관련해
공급량, 공급·배송 등과 더불어 노인복지향상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이 협약을 통해 관내 경로당 229개소에 친환경 쌀
2천735포(20Kg/1포)가 지원된다.



인구감소지역협의회 제2차 준비위원회 개최

20230228

과산군은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창립 준비를 위해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2차 준비위원회 회의를 2.28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경기도 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및 양양군, 충청남도 청양군, 전라북도 임실군, 전라남도 신안군, 경상북도 고령군 및 영덕군, 경상남도 거창군 11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해 협의회 창립을 위한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지난해 11월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준비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한 이후 창립을 준비하고 있는 과산군은 협의회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중앙부처에 정책을 제안하는 등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인구감소 대응 ‘주민 아이디어 콘서트’ 개최

20230309

인구구조와 경제의 불균형 현상으로 인구유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군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기반을 확보하고자 ‘주민아이디어 콘서트’가 지난 3.9일 괴산문화체육센터에서 개최됐다.

콘서트는 관내 기관·단체 및 지역주민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존의 일방향 토론회가 아닌 원탁토론 방식으로 진행되어, 보육·돌봄, 교육, 정주여건, 문화·관광, 일자리 등 9개의 의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군은 수렴된 의견을 향후 공청회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대만 화롄현 쉬전웨이 현장 충북 괴산군 방문

20230310

괴산군은 지난 3.10일 알고아(ALGOA) 회원국인 대만 화롄현 쉬전웨이 현장 외 22명의 일행들과 간담회를 갖고 우호협력을 다졌다.

군은 이날 간담회에서 괴산군의 현황과 유기농산업, 유기농업 정책, 괴산세계 유기농산업엑스포 등을 소개하며 유기농업의 정보 교환 등의 시간을 가졌다.

화롄현은 대만동부 태평양 연안에 위치해 인구 32만명이 사는 현으로 전체 면적 가운데 산림이 93%를 차지해 대리석이 유명하며, 차 종류의 유기농업과 타이루거 협곡 등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파리아만시와 농수산식품 수출확대 업무협약

20230316

과산군은 3.16일 인도네시아 파리아만시와 농수산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에서 △농수산식품 수출 해외사업 공동이익 창출 및 상호협력 △농수산식품 판매 확대 및 수출입 유통망 구축 △수출입 상품기획, 개발, 마케팅 등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군은 이번 협약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한 로이딘 메르시아 주지사를 13번째 과산명예군민으로 위촉하고 명예군민증과 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로이딘 메르시아 주지사는 2018년부터 인도네시아 벵골루주 주지사로 일하고 있으며 중원대 특임교수로 인도네시아와 과산군의 인재양성 교육 및 교류 역할을 활발히 하고 있다.



박덕흠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

20230327

괴산군은 27일 박덕흠 국회의원을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군정 주요 현안과 2024년 정부예산 확보에 대한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사업별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주요 건의 사업으로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리지구·대사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백두대간 모래재 생태축 복원 △신항지구
▪ 유하지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 건설
△오창~괴산(동서5축) 고속도로 건설사업 △후영 외 10개 지역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등을 건의했다.



제78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 개최

20230330

과산군은 제78회 식목일을 맞이해 충청북도와
공동으로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

특히 이번 행사는 미래세대를 대표하여 문광초
어린이 대표와 함께 희망숲 다짐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등 숲 조성과 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소수면 '대한독립만세' 운동 기념행사 개최

20230403

과산군 소수면은 1919년 4월 2일 소수면에서 펼쳐진 독립만세운동의 숭고한 희생정신 및 순국선열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해 4.3일 만세운동기념비 동산에서 소수 독립만세운동을 재현하고, 소수독립유공자 공적비 준공식을 가졌다.

특히 소수면은 3.1운동을 주도한 민족지도자 33인 중 한분인 권동진 선생과 부자 독립운동을 한 김용응, 김태규 선생을 비롯해 유해륜, 경권중, 송능식 선생 등 수많은 독립투사를 배출한 충절의 고장이다.

당시 소수면에서 만세시위 운동을 주도한 유해륜, 경권중, 송능식 선생 등은 지역유지로서 사회지도층이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정신인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 앞장서 일제에 격렬히 항거하다 검거돼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30명 입국

20230403

4.3일 영농철을 앞두고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30명이 입국했다.

이번에 입국한 계절근로자는 지난해 괴산군과 협약을 맺은
필리핀 아마데오시에서 온 청년들로 오는 8월초까지 4개월간
관내 옥수수, 담배, 고추 등 재배농가를 지원한다.

도내 최초로 도입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괴산농협이
사전에 인력을 요청한 농가에 저렴한 임금으로 인력을 공급하며,
농가는 농협에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군은 고령화, 인구감소로 농촌 인력난을 겪고 있는 소규모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3년 국가브랜드 친환경유기농업도시와 고추 브랜드 부문 대상 수상

20230404

괴산군은 지난 4.4일 뉴욕페스티벌이 주최한 '2023년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친환경유기농업도시와 고추 브랜드(괴산청결고추)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2007년 전국 최초로 친환경유기농업군을 선포한 괴산군은 풍요로운 청정농업을 제1목표로 삼고 유기농의 가치 확산과 농산물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부분을 인정받아 친환경유기농업도시 부문에서 11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2015 · 2022년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를 성공리에 개최하며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유기농업에 대한 위상을 널리 알린 괴산군은 ALGOA(아시아지방정부유기농협의회)의 의장국으로서 아시아 지역의 독자적인 유기농 발전방향 정립을 위해 노력해 왔다.



괴강불빛공원 준공식 개최

20230407

괴산군은 야간체류형 관광의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야간경관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괴강불빛공원을 조성했다.

경관조명, 수국정원, 포토존, 미디어파사드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휴식과 쉼터 공간을 제공하는 괴강불빛공원은 앞으로 충북을 대표하는 야간 경관 명소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



괴산교육발전 정책간담회

20230407

괴산군과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4.7일 괴산증평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괴산 교육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괴산 미래교육을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군에서 제안한 정주형
농촌유학프로그램인 아이유(IU)학 프로젝트 운영과 지역의 특색있고
트랜디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청천면 송면 복합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운영 ·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교육청에서 제안한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에 대해 협의하고
괴산행복교육지구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재체결하는 등
교육현안 사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괴산아이사랑꿈터 개소식

20230411

23.4.11. 괴산군에는 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괴산분소인
‘괴산아이사랑꿈터’개소식이 있었다.

맘쓰허그 장난감 도서관, 아이 숲 놀이터, 교육실 등을 갖춘
아이사랑꿈터는 지역 아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 된다.

특히 군 내 처음으로 마련된 영유아 전용 실내 놀이터인 ‘아이 숲
놀이터’는 ‘자연과 함께하는 청정괴산’을 컨셉으로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자연친화적 놀이터로 구성돼 지역 내 부모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저온피해농가 현장 방문

20230417

괴산군에는 지난 4월 8,9일 이상저온으로 복숭아, 감자, 사과 등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

송인현 괴산군수는 17일 괴산읍, 감물면, 불정면 등을 찾아 냉해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농가들을 위로하며 피해 규모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행정지원을 논의했다.



산촌활성화 종합지원센터 개소식 개최

20230419

괴산군은 4.19일 장연중학교(폐교)에서 '산촌활성화 종합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하며 과산의 새로운 산촌 역사를 이루기 위한 시작을 알렸다.

산촌지역인 과산군은 '산림-산촌 르네상스로 새로운 산촌 시대를 열다'라는 슬로건으로 미래시대 대안공간을 산촌으로 삼고 산림-산촌 문화 공동체를 만들어가고자 '산촌활성화 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특히 군은 과산 산촌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소득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산촌형 주민사업체 발굴과 각종 교육·창업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산 산림문화공동체 육성사업'을 통해 임업인 및 귀산촌인 등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공동체를 연계해 경제적·사회적 부가가치 창출에 나설 계획이다.



괴산 특화 먹거리 개발시식회 개최

20230425

괴산은 지역의 농특산물을 활용한 특화먹거리 개발로
지역농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5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괴산 특화 먹거리 개발'을 위한 시식회를 열었다.

이번 시식회에서는 올갱이 짬뽕(올갱이, 배추), 페스토(버섯),
햄버거(고추), 옥수수빵(옥수수), 젤라또(고추)등 괴산
농특산물을 재료로 해 만들어진 5종류의 음식을 선보였다.

군은 개발된 레시피를 지역상인이나 창업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전수와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친환경 벼 첫 모내기

20230501

괴산군은 1일 소수면 고마리 허연규씨 농가에서 올해 풍년을 기원하는 ‘친환경 벼 첫 모내기’를 했다.

이날 이양한 품종은 조생종인 ‘한설벼’로 우렁이를 이용한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된다.

군은 벼 재배농가에 유기농자재, 벼 육묘용 상토, 우렁이 종파, 맞춤형 비료 등 타지역과 차별화된 괴산 쌀의 명품 브랜드화를 위해 힘을 기울이고 있다.



선진지 견학을 통해 관광메카 실현

20230503

과산군은 '자연과 함께하는 청정과산'을 만들기 위해
지난 3일 관련 공무원들과 '고양 국제 꽃 박람회'를 방문했다.

이번 선진지 견학은 과산의 지방정원 조성과 특색있는
관광 자원 발굴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일산호수공원 주변을
활용한 다채로운 볼거리는 과산군 지역 실정에 맞게 반영될
예정이다.



쌍둥이 출산가정에 1억원 지원

20230504

군은 셋째, 넷째 쌍둥이를 출산한 가정에 각각 5000만원씩
모두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했다.

지난 해 2000만원이던 셋째 아이 이상 출산장려금을 올해부터
5000만원으로 대폭 올려 문광면 임씨 부부가 첫 수혜자가 됐다.

군은 출산장려금 외에도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임신·출산 축하꾸러미 지원 등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고산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방소멸 위기 모범대응 과산군에 한창섭 행안부 차관 방문

20230511

한창섭 행안부 차관이 지난 11일 지방소멸 위기에 모범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과산군을 방문했다.

송인현 과산군수, 이현종 철원구수, 박형호 신안부군수가 참여한 가운데 이번 면담에서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 수립 시 인구감소지역 포함 건의 △인구 감소지역 내 공공주택 입주요건 완화 건의 △약취오염도 배출허용기준범위조정 건의 △인구감소지역의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 건의 △인구감소지역 내 농업진흥지역 지정 · 해제에 관한 규제 완화 건의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이어 칠성면 미루마을 '숲속작은책방'에서 열린 인구감소지역 현장 간담회에서는 지역원로와 청년, 기업인, 귀농귀촌 청년 등과 과산군 지방소멸대응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지역청년과 정착민을 대상으로 귀촌 계기와 경험, 정부정책과 보완할 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괴산군-과천청사관리소 -괴산농축협, 직거래 장터 업무협약

20230515

괴산군은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 활성화를 위해 과천청사관리소(소장 김주이), 괴산농축협(괴산증평축협·괴산농협·군자농협·불정농협·청천농협)과 15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내 우수 농축산물의 판매 증가와 더불어 신선한 농·축산물을 청사관리소 입주직원에게 공급해 먹거리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리 거점소독소 긴급 점검

20230515

과산군은 14일 증평군 도안면 소재 한우사육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인근 지역인 사리면에 설치된 거점소독소를 긴급 점검하고 운영에 들어섰다.

4년만에 발생한 구제역으로 위기단계가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됨에 따라 가축방역 대책상황실을 과산군 재난안전 대책본부로 확대하고 비상근무체계를 실시했다.



지역발전을 위한 군정자문단 회의 개최

20230522

괴산군은 22일 전문가 등의 다양한 고견을 듣고 군정에
집목할 정책 발굴을 위해 군정자문단 전체회의를 열었다.

각 분야별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군정자문단은 이날 주요 군정
현황과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괴산군이 나아가야
할 미래비전과 정책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군은 군정자문단의 전문적인 식견과 폭넓은 경험을
군정운영에 활용할 계획이다.



자연과 함께하는 청정괴산



괴산배추 대만에 8년째 수출

20230526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전문수출 우수 생산단지인 괴산농협
배추작목반은 올해로 8년째 대만에 배출을 수출하고 있다.

준고랭지에서 생산되는 괴산청정배추는 큰 일교차 덕분에
아삭아삭한 식감과 단맛, 고소함이 더해져 대만에서도
맛과 품질이 우수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올해 첫 과수화상병 발생에 비상체제 돌입

20230601

6.1. 불정면 사과 과수원에 올해 들어 첫 과수화상병 감염이 확인됐다.

군은 이들 과수원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공적 방제 지침에 따라 감염 나무를 뽑아 매몰처리 했다.

군은 비상체제 가동과 함께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괴산 칠성시장거리축제 ‘별별락장’

20230602

‘7080 뉴트로 시장거리’라는 주제로 6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칠성시장거리 일원에서 펼쳐진 ‘2023 칠성시장거리축제 별별락장’이 다양한 지역에서 모인 관광객들과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응 속에 성황리에 치러졌다.

올해 처음 열린 이번 축제는 ‘7080 뉴트로 시장거리’라는 주제에 걸맞게 오랫동안 비어있던 점포들을 추억의 감성·전시공간으로 운영하고 달고나 만들기, 옛날교복체험, 전통놀이 등 남녀노소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통해 다양한 세대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충북1호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에 괴산군 선정

20230602

괴산군은 국토교통부 등 7개 부처가 공동 협력하여 추진하는 지역활력타운 조성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은 인구소멸에 대응하고 은퇴자·청년층의 지방 이전 유도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7개 중앙부처가 연계 협력하여 주거, 생활기반시설, 생활서비스가 복합된 균형 있는 생활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괴산군 '성산별곡·성산별빛마을' 사업은 자속적인 인구감소와 노령화 및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여 아름다고 쾌적한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기획된 사업으로 수도권·대도시 은퇴자를 대상으로 주택(임대20, 분양 20호, 필지 분양 15호), 성산 문화센터, 방문객 주차장, 스마트팜, 케어팜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통째로 정원마을 조성을 위한 스마트팜, 사회적농장 케어팜, 마을여행사설립운영으로 공동체 활성화 및 '쉼터+일터+쉼터'가 결합된 생활복지를 실현하는 특색 있는 활력타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9차 ALGOA·제4차 GAOD 정상회의 참석

20230603-20230607

과산군은 6.5~6일 필리핀 라나오 멜 노르테 주 카우스와간시에서 열리는 제9회 아시아지방 정부유기농협의회(ALGOA) 및 제4회 세계유기농연합회(GAOD) 정상회의에 IFOAM Organic Asia와 필리핀 농림부의 공식 초청으로 참석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초대 의장국으로써 8년간 의장국을 맡았던 과산군에 이어 필리핀 카우스와간시가 의장국을 맡게 됐다.

알고아(ALGOA)는 '2015과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기간 중 과산군이 중심이 돼 아시아 지역의 독자적인 유기농 발전방향 정립을 위해 창립됐으며, 과산군이 초대 의장국으로 선출돼 2023년까지 8년간 알고아(ALGOA)를 이끌어 왔다.

2015년에 이어 2022과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과산군은 그간 아시아 유기농지도자 교육, 세계유기농청년대회 개최 등 유기농의 세계화에 기여해오며 대한민국 최고의 유기농업군으로 명성을 이어오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에 정부예산 건의

20230612

송인현 과산군수는 원희룡 국토부장관을 비롯해 이원재 1차관, 김정희 국토정책관, 이용욱 도로국장 등 관계 공무원을 만나 지역 현안사업의 신속한 시행 · 정부예산 반영을 적극 건의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방문

20230613

송인현 괴산군수는 13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지역현안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제17회 시장·군수·구청장 산림연찬회

20230614

송인현 괴산군수가 13일 산림청 주최로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열린 제17회 시장·군수·구청장 산림연찬회에 참석하여 ‘산림을 통한 새로운 산촌시대 산림에서 답을 찾다’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산림면적이 76%인 전형적인 산촌지역인 괴산군은 가장 많은 자원인 산림을 활용해 ‘산촌에서의 새로운 삶의 대안을 찾는 것’을 당면 과제로 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중원대 간호학과, 기본간호학 실습실 II 현판식

20230614

중원대학교는 괴산군의 지원사업으로 간호학과 실습실 공간 확장과
최신 기자재 도입으로 '기본간호학실습실 II 개관 현판식'을 가졌다.

중원대는 이번 개관을 통해 학생들이 보다 현실적인 상황을 모의하여
실전적인 간호 기술을 연습해 취업 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중원대는 충북 괴산 최초이자 유일한 4년제 사립 종합대학교로 2009년
3월 개교하여 4개 단과대학 2개 학부로 이루어졌으며 항공대학, 간호학과
등이 간판학과로 알려져 있다.



스마트팜 현장간담회

20230615

괴산군은 김영환 충북지사와 함께 괴산의 엽채류 스마트팜을 방문해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는 스마트팜 농업인, 청년농업인, 관계공무원등이 참여한 가운데 스마트팜 발전 방안으로 스마트팜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제품 개발, 농산물 꾸러미 사업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괴산군은 전국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단지 5곳 중 2곳(불정면, 칠성면)을 유치한 곳으로 미래 첨단 스마트 농업을 선도하는 노지스마트농업 중심지로의 기대를 모이고 있다.



학교급식(괴산고) 현장 방문

20230615

괴산군은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학부모 교육비 경감과 함께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매년 초·중·고·특수교 등 지역내 24개 학교에 무상급식을 위한 식품비를 교육청과 분담 지원하고 있다.

15일 괴산고 급식소를 방문한 송인헌 괴산군수는 학생들의 급식 현장을 살펴보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지역에서 생산한 친환경·우수농축산물 등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약속했다.



2023년 지역활력타운 시범사업 시장·군수 간담회

20230616

16일 국토교통부 이원재 1차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23년 지역활력타운 시범 사업' 지자체장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는 지난 2일 지역활력타운 공모에 최종 선정된 7개 지자체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중앙·지방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역할분담,
지역활력타운 확산전략, 제도개선 등 건의사항, 후속일정 등이 논의됐다.

과산군이 선정된 '칠성면 성산별곡 활력타운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약 242억원을 투입해 수도권 은퇴자, 귀농·귀촌 희망자를 위한 주거
·생활서비스·인프라가 연계된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칠성면
주민들의 40년간 숙원사업이던 성산마을 내 돈사철거를 계획하고 있어
오랫동안 악취로 고통받던 성산마을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성화에 크게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어린이 참여한 '아동친화도시 원탁토론회' 개최

20230617

과산군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군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아동·학부모·
아동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원탁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실행 방안에 대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고, 군은 추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8월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UN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사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과산군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슬로건으로 '아이들이 꿈꾸는 행복, 함께 만드는 미래 과산'을 선정했다.



[주]네파스야하드와 투자협약 체결

20230620

괴산군은 충청북도와 함께 (주)네파스야하드와 투자규모 1000억원, 300명 신규 고용 계획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협약을 20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주)네파스야하드는 괴산 첨단산업단지 내 신규 공장을 증설할 예정이며, 기존 (주)네파스라웨 청안공장과 함께 시스템반도체 후공정 라인과 최근 증가하는 2차전지 산업의 생태계 구축으로 지역뿐만 아니라 충청북도의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주)네파스야하드 투자유치와 더불어 시스템반도체 첨단AI분석 플랫폼 구축사업을 통해 괴산군의 지역발전을 이끌 첨단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6.25전쟁 제73주년 기념행사' 개최

20230625

괴산군은 25일 전쟁의 역사적 의의와 교훈을 상기하고, 6.25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 숭고한 정신을 기리며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6.25전쟁 제73주년 기념식'을 괴산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했다.



민선8기 취임 1주년 기자회견

20230628

송인현 괴산군수는 민선8기 취임 1주년 군정 성과와 군정 운영방향을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1년간 농업, 관광, 정주환경 개선 및 확충, 출산·육아 등 지역 발전을 위해 이뤄온 성과와 더불어 이를 바탕으로 괴산군 미래 100년 번영을 위한 군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체류형 관광산업과 농업경쟁력 강화, 살기 좋은 과산 조성에 선택과 집중으로 '군민이 행복하고 잘사는 과산, 자연과 함께하는 청정괴산'을 실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민선8기 1주년 기념 군민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20230629

과산군은 민선8기 출범 이후 1년간의 군정 성과와 방향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군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청년, 귀농귀촌인 등 여러계층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과산군의 농업, 관광, 정주 환경개선, 교육, 복지 등 광범위한 분야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듣고 답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사전에 군민들이 작성한 소망 메시지를 담은 대형 소망 나무는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주민들의 작은 소리까지 담아내어 군민들이 바라는 과산군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는 바탕이 됐다.

이날 제시된 다양한 의견은 앞으로 군정 운영 방향에 반영 될 계획이다.

